

23회 섬진강국제실험예술제 '섬진강별곡' 열린다

자연과 인간을 잇는 국제예술의 서사... 다양한 형식의 캠페인 퍼포먼스 펼친다

전남 곡성의 섬진강 일대가 울가을, 예술과 농촌문화,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로 변신한다. 오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2025 섬진강국제실험예술제(SIEAF)는 올해 주제를 '섬진강별곡'으로 정하고, 강과 숲, 섬진강 설화와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양한 예술 언어로 풀어낸다.

SIEAF는 2002년부터 한국의 실험적 예술의 중심축을 담당해 온 국제예술제로, 흥대앞, 제주도를 거쳐 2021년부터 곡성에서 이어오며 농촌문화와 예술의 융합을 시도해 왔다. 단순한 공연 축제를 넘어, 인문적이고 철학적인 실험성을 기반으로 지역과 세계,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는다.

올해 축제의 서막은 10월 23일 압록 유원지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섬진강 두꺼비 & 도깨비 잔치>다. 섬진강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이 개막공연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1부 '두꺼비 랩소디'는 희생과 구원의 상징인 두꺼비 설화를 바탕으로, 음악과 연극이 결합된 창극과 굿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섬진굿이 어우러지는 집단 의례 퍼포먼스다.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기원을 봉헌하는 예술적 굿판이 마련된다.

이어지는 2부 '도깨비 잔치'에서는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 도깨비가 되어, 창극과 불쇼, 드론, 미디어아트 등이 뒤섞인 카니발을 펼친다. 역놀이 감정과 창의성이 자유롭게 분출되는 순간, 설화는 현대의 예술로 다시 살아난다.

축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화이트룸 퍼포먼스>다. 10월 23일,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해 곡성에 이르는 이동 자체가 퍼포먼스가 된다. 기차와 버스, 강과 마을이 곧 무대가 되며, <섬진강 플로깅 퍼포먼스>팀과 합류하여 참가자들이 카누와 카약을 타고 강을 따라 이동하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동시에, 다양한 형식의 캠페인 퍼포먼스를 펼친다. 정화·재생·연결·공동체라는 메시지를 담아, 도시와 농촌, 인간과 자연을 잇는 친환경 프로젝트다.

자연 속에서 열리는 <숲에서 만나는 관음미소>(10월 24일)는 관음사 숲길에서 부도와 명상춤, 즉흥음악, 시낭송이 어우러지는 명상적 퍼포먼스다. 관객은 고요한 숲에서 몸과 자연의 울림을 감각하며, 예술이 곧 치유가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섬진강 도깨비 낮장>(10월 25일)은 도깨비마을을 배경으로 도깨비춤, 마술, 바디뮤직, 부도 체험을 마련해 놀이와 예술이 결합된 장을 연다. 또한 <동화정원의 동화세상>(10월 26



일)은 10만 평 꽃밭이 무대가 되어 음악·무용·마임·저글링·마술이 펼쳐진다. 두 프로그램은 심청어린이대축제와 연계 행사로, 아이들이 동화 속 주인공이 되는 시간을 선사한다.

9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열리는 <SIEAF 아카이브전>은 지난해 주일 프로그램을 사진과 영상으로 전시해, 축제를 경험하지 못했던 지역민과 관객들에게 SIEAF의 기억을 공유하고 확장하는 자리다.

또한 일본의 부도 아티스트 텐메츠 도시와 노르웨이 무용가 배규자가 각각 워크숍을 진행해, 몸을 매개로 자연과 예술을 탐구하는 수행적 체험을 제공한다. 마지막 날에는 '섬진강관광벨

트와 문화예술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려, 예술과 생태문화관광의 접점을 모색한다.

섬진강국제실험예술제는 예술과 농촌문화의 융합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농촌의 일상과 예술과 만나는 순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농촌은 새로운 상상력이 피어나는 터전이 된다. 또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환경적 실천과 철학적 사유를 동반한 예술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SIEAF에는 뉴질랜드, 노르웨이, 레바논, 일본, 태국, 프랑스, 한국 등 7개국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며 전라남도, 곡성군이 후원하고 풀무원이 협찬한다. 곡성/이경수 기자



장성군, 24일 상무대·북이도서관에서 '문화 행사'

작가와와의 만남... '일과 속 여가', '별빛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장성군 문화예술단체 '청춘그루터기'가 오는 24일 책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를 선보인다.

행사는 '일과 속 여가'와 '별빛도서관'로 나뉘어 열린다. 먼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상무대 공병학교에서 열리는 '일과 속 여가'는 군인 장병과 가족들이 대상이다. '스타벅스, 공간을 팝니다'의 저자 주홍식 작가와의 '북도크', 기타리스트 박지형의 연주, 무궁화 방향제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기다린다.

오후 6시 북이도서관에선 '별빛도서관'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한다. '나, 틈에서 살다'를 쓴 박형동 시인의 강연과 보컬 김영호의 노래, 온 가족이 함께하는 아로마

오일 마사지, 요가 등이 준비된다. 한편, 이번 문화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 장성군이 주최하고 지역 문화진흥원, 전라남도문화재단, 청춘그루터기가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청춘 그루터기는 앞선 8월에도 장성군립중앙도서관에서 '별빛음악회'와 '별빛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선사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깊어가는 가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책과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프랑스 파리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특별전

프랑스 파리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민주주의 역사가 전시된다.

광주시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프랑스 파리 귀스타프 에펠대학에서 '광주 5·18 사진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시 정체성과 민주주의-1980년 5월 한국 민주화운동 사진 아카이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1980년 항쟁의 전 과정을 담은 사진 90여점과 영상 기록물이 소개된다.

5·18 당시 신군부의 총·칼을 피해 현장을 기록한 기자들의 사진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물이 전시된다.

전시는 시위, 진압, 항쟁, 저항, 학살, 애도 등 6개 섹션과 항쟁을 기록한 사진가들을 조명하는 특별 섹션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신군부의 폭력적 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시민들의 투쟁과 희생, 도시공동체의 연대 정신을 집중 조명한다. 이 밖에도 다류멘터리 '김군'과 단편영화 '양립동소녀' '괜찮아'를 상영하고 역사적 의미를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도 진행된다.

라운드테이블에는 당시 현장을 취재한 프랑스 외신 기자와 국내 연구자들이 참가해 생생한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명수 기자

가을의 문턱인 이달 27일,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일대가 책 향기와 별빛으로 물든다.

영암군이 '2025 별빛책마당'을 열고, 오전 10시부터 늦은 밤까지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이번 축제는 전시와 함께 참여자들의 문화 체험이 중심인 행사다.

먼저, 그림책 작가 오치근 화백의 영암 감성 풍경 그림이 담긴 책 <영암을 그리다> 원화전, 한국어아추어천문학회의 천체 사진전이 관객을 맞이한다.

오후 3시에는 '지리산 어린왕자'로 불리는 박남준 시인이 테마무대에 올라 '내가 사랑한 바오, 마다가스카르 어린왕자' 이야기를 주제로 관객과 대화를 나눈다.

가족이 함께 꾸미는 15가지 체험 프

가을 문턱, 영암 왕인박사유적지에 책 향기와 별빛 물씬

영암군, 27일 별빛책마당... 헌책 교환부터 SF 영화 상영까지

그럼으로 그림책, 전통책, 키링, 꽃팔찌, 양말인형 만들기에서 별자리 타로까지 진행된다.

특히, 체험 프로그램 중 '그레서(書) 다 가치 그림책 출판학교' '나도 최지몽 천체 관측 경연' 참여는 홍보 포스터에 있는 정보QR코드를 활용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저녁 8시에 시작하는 천체관측 경연대회는 영암 출신 천문학자 최지몽을 기리는 행사로 참가자들은 망원경으로 지정된 별자리나 행성을 찾아내며 우주의 신비를 경험한다.

헌책 교환부터 영화 상영까지 풍성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헌책 3권을 가져오면 새책 1권과 교환해 주는 '헌책 줄게 새책 다오'는 지난해 뜨거운 반응을 이어 올해도 활발한 도서 교환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북마켓, 책방나들이에서는 10여 개 출판사의 다양한 장르 도서를 만날 수 있고, 잔디밭에서 여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북크니 쉽터도 운영된다.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SF 단편영화 상영도 더해져 하루 종일 색다른 즐거움이 전해진다.



별빛책마당과 함께 26-27일에는 월출산도갑사 도선국사 예술제, 26-28일에는 숲순환경연회제가 더해져 지역 전체가 문화의 열기로 가득찬다. 영암/김희선 기자

국민 내로남 다를 일거사

보다나온 농어촌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지

금이 있습니다

어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